

# 『豊山金氏世傳書畫帖』의 구성과 金重休의 편찬의식

최은주\*

## 차례

- I. 머리말
- II. 『豊山金氏世傳書畫帖』의 구성
- III. 『豊山金氏世傳書畫帖』에 나타난 金重休의 편찬의식
  - 1. 후손으로서의 가문에 대한 긍지 발현
  - 2. 전달자로서의 기록적 역량 표출
  - 3. 조선 후기 영남인으로서의 지역 내 위상 재정립 시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豊山金氏世傳書畫帖』의 구성을 살피고 이를 통해 金重休의 편찬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 것이다. 『豊山金氏世傳書畫帖』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에서 오백여 년 간 세거해온 豊山金氏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화첩으로, 鶴巖 金重休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서화첩은 17점의 그림이 수록된 乾과 14점의 그림이 수록된 坤의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산김씨 10세부터 20세까지의 인물 가운데 19명의 행적을 그린 각각의 그림 우측 상단에는 표제가 적혀 있고, 뒷장에는 그림을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둘러싼 일화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기억할 만한 것을 골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시대에는 가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가문을 드높이고자 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선조에 관한 사적을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한다는 것은 가문과 조상에 대한 존숭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화첩은 편찬자가 단순히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편찬자 스스로가 지니고 있던 자료 정리 및 축적에 대한 관심과 18세기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自家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풍산김씨세전서화첩』, 김중휴, 풍산김씨, 편찬의식, 조선 후기

## I. 머리말

『豐山金氏世傳書畫帖』(이하 『세전서화첩』)은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에서 오백여 년 간 세거해온 豐山金氏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화첩으로, 鶴巖 金重休(1797-1863)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서화첩에는 풍산김씨 10세손인 珍山 金徽孫(1438-1509)으로부터 10대에 걸친 인물 19명의 주요 행적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통 시대의 문학은 단순히 시문 창작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당시의 문학 활동은 인접 분야와 소통하면서 예술 일반을 넘나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전서화첩』은 주목할 만한 자료다. 단순히 시문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그림을 함께 실어놓으면서 기록적 면모를 드러

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전통시대에는 가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가문을 드높이고자 하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18세기 戊申亂 이후 영남의 경우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지역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문 혹은 학과 간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은 문학으로 표출<sup>1)</sup>되었다. 이 자료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만하며, 이 서화첩은 다른 가전서화첩과는 달리 오랜 기간을 두고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편찬 당시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편찬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편찬자인 김중휴는 자신의 선대 인물들의 사적과 유고를 모아 16권의 『石陵世稿』를 편찬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조상의 행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넓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심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조와 관련된 시문과 그림을 모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세전서화첩』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자료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민속학과 미술학 분야에서 주목하여 왔다. 이 자료에 대한 연구는 1982년에 문중에서 『세전서화첩』을 번역하여 발간한 것<sup>2)</sup>이 그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화첩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문중 내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국역하는 차원에

1)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지애(芝厓)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496쪽.

2) 김철희 역(김직현 서), 『세전서화첩』, 1982.

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이러한 자료의 소개는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sup>3)</sup> 서화첩의 전체 자료가 아닌 일부 장면과 간단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국역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민속학과 고미술학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민속학에서는 안동지역 동성마을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연구하는 가운데 배영동이 안동 오미마을의 풍산김씨에 주목하여 『세전서화첩』에 담긴 문중과 조상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연구<sup>4)</sup>가 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세전서화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수록 내용과 서화의 주인공과 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김중휴의 문중에 대한 통합의식과 분파의식을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정혜는 이 서화첩을 지방의 사가기록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sup>5)</sup>하였다. 이 연구는 이 서화첩의 중심이 그림에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닌 기록화적 성격과 회화적 특징 및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서화첩의 실제 기법으로 볼 때 두 명이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았으며, 19세기 전반 중앙화단의 회화 경향과는 다른 지방화단의 존재 가능성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박정혜의 연구는 미술사적 접근이므로 서화첩의 중심이 그림에 있다고 보고 연구를 전개하고 있기에 본고에서 서술하고자하는 방향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물론 자료가 지닌 기록화

3) 국립국악원 편,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국립국악원, 2002.

한국국학진흥원 편,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2.

4) 배영동, 「안동 오미마을 풍산김씨 『世傳書畫帖』으로 본 문중과 조상에 대한 의식」, 『한국민속학』42, 한국민속학회, 2005.

5) 박정혜,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 조선시대 《풍산김씨세전서화첩》 연구 -」, 『정신문화연구』29권 2호(통권 10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려 있는 시문의 양적인 측면과 시문 가운데 특정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림이 주체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sup>6)</sup>

이처럼 앞선 연구들은 대체로 서화첩에 담긴 그림의 주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소개하고, 가문을 드높이려는 의도와 함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이 서화첩에 다량 소재한 시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제와 내용 등을 살피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이다. 여기에 실린 그림이 그러한 일화의 특징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기는 하나, 그림과 시문을 함께 살펴 편찬자의 의식을 함께 고찰해 보아야 한다. 편찬자인 김중휴가 선조에 관한 많은 자료 가운데 취사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그의 의식을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전서화첩이라는 기본적인 자료의 특성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만 치우쳐 본다면 자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되, 자료에 실린 시문을 꼼꼼하게 살피고, 당시 사회상을 살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편찬해 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다소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그려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오늘날 되살려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Ⅱ장에서는 그 구성을 살펴 구성상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통해 Ⅲ장에서는 김중휴의 편찬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6) 이러한 견해는 배영동(2005)에 의해서도 지적된 것으로 그림은 누구나 알기 쉽게 시문의 내용 일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전부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배영동, 앞의 논문, 200쪽.)

## II. 『豊山金氏世傳書畫帖』의 구성

『세전서화첩』은 17점의 그림이 수록된 乾과 14점의 그림이 수록된 坤의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그림 우측 상단에는 표제가 적혀 있고, 뒷장에는 그림을 둘러싼 일화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sup>7)</sup>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풍산김씨 10세부터 20세까지의 인물 가운데 19명의 행적<sup>8)</sup>이 31점의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서화첩을 제작한 鶴巖 金重休(1797-1863)는 풍산김씨 深谷公派 과조인 金慶祖의 8대손으로, 1797년에 태어나 1837년(헌종 3)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1858년(철종 9) 12월에 齋陵參奉에 제수된 인물<sup>9)</sup>이다. 그는 선대 인물들의 사적과 유고를 모아 16권의 『石陵世稿』를 편찬하기도 하고, 순한글 족보[家牒]를 붓으로 써서 만들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조상인 潛庵 金義貞(1495-1547)의 신원을 회복하고 시호를 다시 받기까지 1818년부터 1861년까지의 전후사정 및 연관 문서들을 등사하고 기록한 『靑蛇明冤錄』도 남긴 바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선조의 사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에 관심을 쏟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그의 생주이나 교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서화첩의 제작 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

7) 이 서화첩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2012년에 민속원에서 영인되어 출판되었으며, 본고의 연구 대상 또한 영인본을 그 대상으로 한다.

8) 이들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앞선 연구에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들의 가계도나 인적 사항은 배영동(2005)과 박정혜(2006)의 연구에 자세하다.

9) 그러나 그가 남긴 일기에 따르면 1858년 12월 20일 齋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당시 나이와 거리를 고려하여 곧바로 啓遞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그가 1857년에서 1860년 사이에 남긴 일기<sup>10)</sup>에 배접하여 서화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몇 차례 등장하는 것을 통해 볼 때 18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sup>11)</sup>할 수 있다.

서화첩에 실려 있는 그림과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sup>12)</sup>

〈표 1〉 『세전서화첩』 내용 개요<sup>13)</sup>

주인공	그림 순서	그림 제목	내용
金徽孫(1438-1509)	1	大枝賭博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五美洞의 지명 유래와 大枝山을 얻게 된 사연</li> <li>· 仙遊庵, 留衣庵 관련 김대현의 시, 柳成龍의 차운시</li> </ul>
金楊震(1467-1535)	2	東都聞喜宴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 김의정의 과거급제 축하연 개최</li> <li>· 김의정의 「春風辭」, 김양진의 화답시, 이언적의 「送玉堂金正字」 등</li> </ul>
	3	完營民泣隨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관찰사 재직 시 선정 배품</li> </ul>

10) 김중휴가 남긴 일기는 본래 학암고택에 소장된 익명의 일기로 알려져 있던 것으로, 표지에 '日記-丁巳'로만 표시된 전체 분량 160면의 필사본 일기이다. 그러나 이것이 김중휴의 일기로 밝혀짐에 따라 일기 기사에 등장하는 서화첩 관련 기록이 『세전서화첩』을 지칭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김중휴일기』는 한국학 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에서 볼 수 있다.

11) 문중의 구전 상황과 배영동은 18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박정혜의 경우 186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혹은 서화첩 말미에 첨부된 후기 등을 근거로 김중휴가 세상을 뜨고 1880년대에 간행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중휴가 죽기 전에 제작한 것으로 본 배영동의 기존 견해와 『김중휴일기』의 기록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12) 본고에서는 개별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개별 그림에 대한 설명은 배영동(2005)과 박정혜(2006)의 연구에 자세하다.

13) 박정혜(2006), 앞의 논문, 270~273쪽 참조.

	4	海營燕老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관찰사 재직 시 양로연 배품</li> <li>· 蘇世讓의 「賜答書」</li> </ul>
金義貞(1495-1547)	5	酒庵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사사화 이후 은거하게 된 경위</li> <li>· 金麟厚와 주고 받은 詩</li> <li>· 李滉과의 교유 및 이황의 차운시</li> </ul>
金農(1543-1591)	6	高原宴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사 이유</li> <li>· 친구인 高原郡守 이흔이 축하연 배풀어줌</li> </ul>
	7	伴鵬亭泛舟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복원의 만구정에서의 선유</li> <li>· 『同遊錄』의 座目</li> <li>· 金農의 차운시</li> </ul>
	8	洛阜誼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焉逢攝提格姑洗庚辰世會錄』 「座目」 및 결성 배경</li> <li>· 金農의 序文</li> <li>· 참석자의 축하</li> </ul>
金大賢(1553-1602)	9	天朝將士餞別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99년 2월 훈련원에서 개최된 凱旋를 위한 연회</li> <li>· 형개를 기리는 沈喜壽의 「銅柱文」</li> <li>· 4월 13일 軍門의 都監 郎廳 등에 대한 치사와 포상 요구, 14일 군문의 回禮, 15일 홍계원의 친립上馬宴에 대한 기록</li> <li>· 軍門 黃敬欽의 시 「悠然堂」· 「驢傲軒」· 「十景」</li> </ul>
	10	七松亭同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七松亭同道會題名錄」(座目)</li> <li>· 金대현의 「序題名錄後」</li> <li>· 金聲久의 「追序」 및 權斗經의 識</li> </ul>
	11	換鵝亭養老宴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로연 개최 배경과 실행 모습</li> <li>· 원작의 제작과 사후 추모</li> </ul>
金壽賢(1565-1653)	12	朝天餞別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千秋副使로 赴京함</li> </ul>
金奉祖(1572-1638)	13	泛舟赤壁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봉조의 상소문과 비답</li> <li>· 申亨甫의 「奉呈疏首行軒」</li> <li>· 金봉조의 차운시 7수</li> <li>· 동유한 同志 와 원작 제작 동기</li> </ul>
	14	丹城宴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성 부임과 양로연 개최의 배경</li> <li>· 權濤의 「原韻」, 4수와 金봉조의 차운시 「春和詩」</li> <li>· 화가 오삼도와 원작을 제작한 동기</li> </ul>



金榮祖(1577-1648)	15	假島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정 및 假島의 모습, 주요 행사 일정과 묘사</li> <li>· 김영조의 「蛇浦元日」, 이안눌의 차운시 2수</li> </ul>
	16	航海朝天餞別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 및 친지 25명의 전별시</li> <li>· 여순 부근에서 풍랑을 만난 일화와 皇城에서 겪은 일화</li> <li>· 사행 중에 지은 詩</li> </ul>
金昌祖(1581-1637)	17	帝座冥籍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창조의 꿈 서술</li> <li>· 剛方正直한 성품 관련 일화</li> <li>· 김응조의 祭文</li> </ul>
金慶祖(1583-1644)	18	羸石樓宴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회 개최의 배경과 참석자 15명의 座目</li> </ul>
	19	深川艸廬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관 閱應協의 김경조에 대한 인물평</li> <li>· 병자호란 때 관찰사를 꾸짖은 일화</li> </ul>
	20	檜谷精舍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深川과 檜谷에 은거처 마련한 경위</li> </ul>
金延祖(1585-1613)	21	聖學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이 준 '聖學圖'</li> <li>· 김대현의 「寄字延祖書」</li> <li>· 柳元之의 「金重卿家藏庭訓錄後跋」</li> <li>· 김응조의 「家狀」 및 「書先君子庭訓帖後」</li> <li>· 柳紜의 撰 「公言行略曰…」</li> <li>· 김영조의 「祭文」</li> </ul>
金應祖(1587-1667)	22	鶴沙亭仙會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응조의 「鶴沙精舍記」</li> <li>· 학사정에 대한 士友 13명의 題詠詩</li> <li>· 愚川 鄭弼의 「鶴沙亭記」</li> <li>· 김응조의 「書鶴沙仙會錄後」<sup>64</sup></li> </ul>
金念祖(1589-1652)	23	果川倡義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檄邑中小民人文」</li> <li>· 趙綱에 대한 答書: 「答龍洲趙公書」</li> <li>· 「軍中條約」</li> <li>· 김응조의 「祭文」</li> </ul>
金崇祖(1598-1632)	24	盆梅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八蓮五桂之美에 대한 인조의 賜洞名, 追贈, 賜祭 등의 내용</li> <li>· 김승조가 애호하던 조부 김농의 「十梅詩」</li> <li>· 김승조의 「盆梅詩」</li> </ul>
金時忱(1600-1670)	25	鳴玉埜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호 一慵齋에 대한 설명</li> <li>· 명옥대에 누각을 짓기 위해 여러 읍에 보낸 「通文」</li> <li>· 암자의 묘사와 1742년 증건할 때의 通文</li> </ul>

			· 이황이 지은 명옥대 詩, 김시침의 詩 등
金侃(1653-1735)	26	甘露寺宴會圖	· 감로사연회 개최 배경 · 『同遊錄』 題名 · 김간의 「甘露寺韻」 및 「次自如韻」 · 원작의 제작 동기
	27	竹巖亭七老會圖	· 七老會의 구성원과 개최 배경 · 안연석의 「索居無聊吟七懷詩求和」 · 참석자들의 차운시 「次北溪七會詩」 · 나학천의 「七懷詩序」
	28	戊申倡義圖	· 이인좌의 난에 창의하게 된 배경 및 경과 · 김간의 「通鄉中文」 · 의병단조직 및 명단, 「軍門節目」 · 1788년 영남유생들의 「倡義事蹟」과 정조의 傳敎
金瑞雲(1675-1743)	29	雉自來圖	· 원작의 제작 유래 · 朴文秀의 「自來雉說」 및 「方伯啓草」 · 1749년 사헌부지평으로 증직, 아들 김서한의 「焚黃席韻」과 친지들의 차운시
金瑞翰(1686-1753)	30	蒼松齋圖	· 學阜書堂의 경영 및 철거 연유 · 자호 창송齋에 대한 설명 · 김서한의 시와 同志 16명의 차운시 20首
金有源(1699-1758)	31	漢津泣餞圖	· 복사에서 낙방한 이유 · 부모에 대한 효행, 모죽당의 유래

제시한 표는 『세전서화첩』에 실린 그림과 그림의 주인공, 그리고 시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제시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명의 선조의 행적을 31점의 그림과 함께 그려내고 있다. 모든 인물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한 명의 인물이 여러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경우도 있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려 있는 시문을 통해 추측해 본다면 인물에 따라 여러 가지 드러낼 만한 행적이 많을 경우 단 하나의 그림만으로는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여겨 몇 가지로 나누어 실어두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나의 그림에 함께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문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물에 좀 더 광범위하게 관련을 가지는 시문도 있는 등 그 성격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련 시문의 다양성은 이 서화첩의 중심이 시문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인물 이해의 편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문이 주체적인 역할은 한다는 인식은 金重休의 從姪인 金鳳欽이 쓴 「書畫帖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원고가 혹 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말로 다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림을 붙여 놓았다.”<sup>14)</sup>고 한 기록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글이 중심이 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그림을 함께 실었음을 알 수 있다.

서화첩에 선택된 인물은 풍산김씨 가운데 오미마을에 처음 정착한 金徽孫(1438-1509)을 시작으로 하여 각 파조에서 훌륭한 행적을 남긴 인물을 골고루 선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신이 속한 심곡공파의 인물이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sup>15)</sup> 이러한 인물의 선별은 그가 이 서화첩을 제작한 배경과도 연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편찬의식을 다루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실려 있는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자.

14) 金鳳欽, 「敬題鶴崑從叔世傳書畫帖後」, 『豊山金氏世傳書畫帖』. “但稿, 或有無傳傳, 而又有不盡言者, 所以繼之也.”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의 국역은 『세전서화첩』(김철희 역, 1982.)을 따라 인용하되, 원문에 비추어 필자가 이해하고 해석한 바에 따라 그 뜻을 고칠 여지가 있는 경우 고쳐 쓰고자 한다.

15) 배영동(2005), 앞의 논문, 219~220쪽 참조. 인물이 속한 파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기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영동(2005)의 연구에 자세하다.

표에 제시된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려 있는 그림을 보면 연회를 그린 그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아마도 오늘날 특별한 행사에 사진을 찍어 그것을 기념하듯이, 연회를 그림으로 그려 그 날을 기억하고자 한 의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남아 있는 그림들 가운데 목적을 지닌 모임을 그린 작품이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조상의 사적을 그린 가전화첩의 경우에도 대체로 특정 행사를 중심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대상 인물이 은거하거나 경영하던 곳 관련, 중국 사행이나 중국사진 접대 관련, 의병 활동 관련, 인품의 칭송 관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6)</sup>

그림의 경우에는 대체로 당시 그림으로 남겨 기억하고자 했던 성격의 것들이다. 특히나 이것이 오랜 기간 시간적 흐름을 두고 그려진 그림들을 모아 집장한 것이 아니라, 편찬 당시에 일괄적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후세에 남겨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림의 특성상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반면에 시간적 흐름을 지닌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지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연회를 그린 그림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幽居하던 곳을 그린 것이나, 효행을 그린 것을 제외하고는 연회의 성격을 지닌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림의 주인공 외에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 정지되어 있지만 동적인 느낌을 부여하여 당시 현장의 생생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이

16) 박정혜의 분류에 따르면 연회도가 13건, 은거나 낙향 관련이 6건, 중국 사행전별 2건, 중국 사진 접대 2건, 의병 활동 2건, 인품 칭송 5건으로 나뉠 수 있다.(박정혜, 앞의 논문, 247쪽.)

는 김봉흠의 글에서 말한 바 있듯이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활동성이 느껴지는 순간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림은 조상의 행적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들 그림 가운데 애초에 이를 주제로 한 그림이 그려진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문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보면 당시 전하지 않는 그림도 있었고, 그림이 전한다 하더라도 실려 있는 그림이 模作인지 改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는 시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체로 시문 역시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앞서 서술했듯이 인물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함께 실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그림과 함께 실려 있는 시문의 양 또한 일괄적이지 않다. 이는 한 인물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뉘어 표현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은 축소되어 나타난 경우가 있고, 혹은 그림의 주인공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의 시문을 함께 실어놓으면서 그 양이 대폭 늘어난 경우, 혹은 한 인물의 행적이 다른 인물에 비해 소략하게 제시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문의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는 다양하나 인물이 가장 먼저 등장할 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동일한 체계를 띠고 있다. 특히 각 인물에 대한 諱, 字, 號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특히 앞서 제시한 인물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華南公諱農 字明甫 嘉靖甲午生 潛庵公之子”와 같은 순서로 인물을 제시한다. 이는 서화첩의 구성 순서가 10세손인 김휘손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휘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가계의

모든 인물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자손인지를 꼭 밝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한 인물에 대해 그림이 다수일 경우에는 첫 번째 시문에만 인물 관련 간단 정보를 밝히고 이후에 이어지는 시문에서는 관련 시문만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물 정보 제시 후에는 인물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때의 생애에 관한 서술은 대체로 뒤이어 나올 자료에 관해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인물의 성장과정을 나열하여 일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생의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그때의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이어질 내용을 단순히 제목만 제시하고 해당 시문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애에서 특정한 부분을 떼어 연결고리를 부여하고 이어지도록 한 방식이다. 따라서 자료를 접하는 이들에게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함께 중심이 되는 사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의 정보 이후에는 먼저 그림과 관련된 시문이 먼저 등장한다. 이는 시문을 배치할 때 그림과의 유기성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문이 실려 있을 경우, 이것이 한 가지 주제로만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니다. 예컨대 〈潛庵圖〉<sup>17)</sup>에서와 같이 金義貞(1495-1547)이 을사사화 이후 은거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은거하면서 주고받은 시 등을 함께 실어 놓는 경우는 그 시문의 제시 순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17) 본고에서는 서화첩에 실린 시문을 설명할 때 書題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 서화첩의 중심이 그림이라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서화첩의 구성이 ‘그림-시문’의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제시되어 있는 書題를 칭하는 것이다.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漢津泣餞圖〉에서 다루고 있는 金有源(1699-1758)의 경우는 과거시험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는 것이 그림으로 본다면 중심이 될 듯하나 실제의 내용은 효행과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 그림마다 뒤에 이어진 서술은 그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림에만 종속되어 있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서술했듯이 이 시화첩을 그림에만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金重休는 기록할 만한 다양한 사실과 일화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장면을 선택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글과 그림이 실려 있지만,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관직에 진출해서 생긴 일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당시 그림으로 그려 전할 만한 성격의 것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것이다. 또한 조상의 시문뿐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시문을 실어두고 있는데, 이 역시 자료를 聚습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선택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것들은 후손이 선조의 사적을 이야기할 때 그의 공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또한 선조의 행적이 여러 가지였을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정하여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은 편찬자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 안동에서의 풍산김씨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18세기 이후 이러한 기록이 선택되어 실리게 된 이유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豐山金氏世傳書畫帖』에 나타난 金重休의 편찬의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전서화첩』은 단순하게 글과 그림을 모아 편찬한 것이 아니다. 편찬자인 金重休는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선조들의 글을 모아 수록하고 기억할 만한 것을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여기서 모든 선조가 아닌 특정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문을 모으고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가 이 서화첩의 편찬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자.

#### 1. 후손으로서의 가문에 대한 긍지 발현

私家에서, 특히 한 문중에서 편찬된 가전서화첩의 경우에 그 편찬의 첫 번째에는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金重休 역시 『세전서화첩』을 만들면서 풍산김씨 가운데 오미동에 가장 먼저 정착했던 김휘손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천위로도 받들어지고 있는 虛白堂 金楊震(1467-1535)을 이어 배치하여 자신들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과 현달하기 시작한 지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스스로 지니고 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인식과 문중에 대한 자긍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 항상 깊은 생각을 했는데, 그가 쓴 『日用雜錄』의 「記夢」(乙酉 1월 9일)에 선조인 華南公으로부터 그의 舊宅을 받는



꿈을 꾸고 鶴巖을 구입하였고, 그 꿈에서 사양하는 자신에게 ‘종손·지손의 구별이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내가 이미 주었으니 사양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기록<sup>18)</sup>하고 있는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 꿈의 기록<sup>19)</sup>이 지니는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이것은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조상의 사적에 골몰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1859년(철종 10) 7월 7일의 일기에서 “제사를 지낸 뒤에 서화첩을 배접했다. 이는 수년간 마음을 쓴 정성이 깃든 것이라 아이들과 종일토록 분주했다.”<sup>20)</sup>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게 있어 조상의 사적을 정리하여 서화첩을 만드는 일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작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중휴가 이처럼 가문에 대한 긍지를 지속적으로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김봉흠이 『書畫帖後』에서 말한 바 있듯이 “오래도록 그림으로 남길 만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sup>21)</sup>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즉 자신의 집안에 口傳으로 전해져 오거나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낼 만한 공적이 있는 선조를 택하여 그것을 단순히 이야기로 풀어내

18)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 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대 屏虎保舍을 중심으로 -』, 『嶺南學』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각주 111 참조.

19) 이 외에도 『김중휴일기』에 꿈의 기록과 자손으로서의 생각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연일 밤 꿈에서 華祖와 작고하신 여러 父兄을 보았고, 또 宗家에 큰 일이 있어서 빈객들이 분주했으니, 이는 先事에 관한 예시인 듯하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앉으니 슬픈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이 일이 성사된다면 내가 자손 된 책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連夜夢見華祖與作故諸父兄, 且宗家有大事, 賓客紛擾, 似是先事兆應. 早朝起坐, 不無愴感之懷. 蓋此事若成, 吾遂子孫之責.)” 같은 구절이 그것이다.

20) 金重休, 『金重休日記』, “初七日, … 行祀後繕書畫帖. 此實積年心力所在, 與兒輩終日奔忙.”

21) 金鳳欽, 『敬題鶴巖從叔世傳書畫帖後』, 『豊山金氏世傳書畫帖』.

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에 합격하여 나라에 공이 있는 자는 우선적으로 그런 면을 부각시켜 드러내고자 하였고, 그것이 아니라면 효행과 같은 인품을 가져와 선조를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허백당공은 (전라감사로) 부임한 즉시 크게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스려 맑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중략)… 지방 풍속이 음탕한 짓을 좋아하기에 禮義로 타이르고 백성의 습성은 또 속이기를 잘하기에 忠信으로 깨우쳐 준 결과, 한 해가 지나자 風化가 크게 달라졌다. 공을 神明처럼 섬기고 부모처럼 처다보게 되었다.<sup>22)</sup>

제시된 자료는 虛白堂 金楊震(1467-1535)이 전라감사로 나가 善政을 베푼 일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김양진이 직임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 향내의 모든 이들이 울며 전송했다는 기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며 함께 실린 그림 또한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재임 당시 선정을 했을 뿐 아니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따라오던 망아지를 다시 묶어두고 올 만큼 아무런 재물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정에 감복한 전주의 백성들은 망아지를 묶어둔 자리에 공의 生祠堂을 짓고, 떠나올 때 전송하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내주었다는 기록을 말미에 첨부하고 있다. 이처럼 善政을 베푼 일화를 통해 자신의 가문에 대한 드높은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인 인물의 행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떠한 인물

22) <完營民泣隨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公下車, 巡宣之日, 大有澄清之志…(중략)… 土俗善淫, 諭之以禮義, 民習好狡, 曉之以忠信, 一年風化丕變, 事之若神明, 仰之如父母.”

과 관련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낸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 선조가 은거하거나 낙향하여 精舍를 짓고 學行을 이어간 경우를 특징적으로 드러내었다. 당시 선비들에게는 선조가 幽居한 공간은 대대로 보존되면서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죽봉공은 친구 여섯[權斗經, 李栽, 羅學川, 趙德鄰, 安鍊石, 李浹]이 있었는데, 모두 한 시대의 어진 사대부였다. 1724년 봄에 이 여섯 명이 죽봉공을 죽암정사에 찾아와 七老會를 만들었는데...(후략)...<sup>23)</sup>

제시한 인용문은 1724년 봄에 竹峯 金侃(1653-1735)이 친구 여섯 명과 함께 竹巖亭舍에서 七老會를 결성하여 화차운시를 짓고 놀던 모습을 그린 첫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간이 七老會를 결성하게 되는 장소이다. 竹巖亭舍는 悠然堂 金大賢(1553-1602)이 세워서 만년에 棲息하던 곳이었다. 오미동 뒤에 위치한 곳으로 후손인 김간은 자신의 선조가 경영하던 공간에 대해 대를 이어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김중휴는 이러한 면모를 드러내어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공간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음을 일깨워준다. 이 외에도 蒼松 金瑞翰(1686-1753)이 살던 蒼松齋에 대한 그림을 남겨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선조의 강학활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중휴는 자신의 선조와 문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철저했던 인물로, 이러한 그의 생각은 서화첩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잘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확장하고 드러내기

23) <竹巖亭七老會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竹峯公有六友, 俱一世世賢士大夫也. 景廟甲辰春, 六君子, 訪竹峯公于竹巖亭舍, 作七老會.”

위해서 안동 입향 이후의 문중 내 인사 가운데 밖으로 드러낼 만한 이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선조가 행한 善政일수도 있고, 의병 활동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 학문 수양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행적들을 통해 문중에 대한 긍지를 널리 드러내고자 하였다.

## 2. 전달자로서의 기록적 역량 표출

31점의 그림에 대해 김중휴는 다양한 시문을 그림의 뒤에 실어두고 있다. 이는 그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화도 많지만, 간접적인 것들도 많이 실려 있다. 김중휴가 선대 인물들의 사적과 유고를 모아 16권의 『石陵世稿』를 편찬한 인물임을 떠올려볼 때 이 서화첩은 그가 선조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선조인 金義貞의 신원을 회복하고 시호를 다시 받기까지의 전후사정 및 연관 문서들을 등사하고 기록한 『靑蛇明冤錄』을 남기기도 했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그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特長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려 있는 자료는 단순히 선조의 문집에서만 뽑아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세대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혹 잃어버릴까 염려되어 家藏箱篋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또 없어진 것이 있으면 각 집안과 知舊에게 널리 찾아 구하였다. 혹 그대로 두기도 하고 혹 옮겨서 描寫하기도 해서 합하여 한 부를 만들어 완전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었다.<sup>24)</sup>

24) 金鳳欽, 「敬題鶴巖從叔世傳書畫帖後」, 『豊山金氏世傳書畫帖』, “夫世遠年邈, 斷爛殆盡,

제시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김중휴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수입하고 이를 한 책으로 만들어 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정된 인물이 몇 백 년을 걸쳐 있으며, 자신이 속한 심곡공파가 아닌 이들의 행적도 함께 실어두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그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金大賢의 아들이 모두 현달하고, 또 몇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풍산김씨는 지파를 형성하였고 파문중 단위의 독자성<sup>25)</sup>을 가지게 되었다. 김중휴가 이 서화첩을 제작한 시기 역시 파문중 단위의 독자성을 지닌 채 움직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단순히 마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신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대한 많은 자료의 확보가 그에게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일을 선택해 제시할 때도 단순히 그 일의 개요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히 장소와 일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연유나 후일의 이야기까지 함께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여러 명이 참석한 계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한 이들의 모든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관련된 시문을 모두 모아 제시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시문의 경우에는 그 원래의 자료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聚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선조와 관련된 부분만을 주목한

---

搜得家藏箱篋，有闕者，旁求于門內及知舊家，并移而新之，世無守者，循蹟而描之，合爲一部，克完世傳。”

25) 배영동(2005), 앞의 논문, 218쪽.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모두 실어 전체적인 정보를 加減 없이 전달하고자 한 것은 그가 관련 기록에 대한 정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 어떠한 특정 공간이나 참석 인물에 대해 서술할 때는 그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밝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어떤 경우 글의 마지막에 ‘出○○○’이라고 적어두거나 시문에 앞서 ‘어떤 글에서 뽑아왔다’는 것을 알려 서화첩에 실려 있는 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출처의 표시는 그가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읽는 이들에게 자료의 확장을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소의 경우에는 그 전문을 실어두고 비답도 함께 실어둠으로써 자신이 선택해 제시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泛舟赤壁圖>의 경우 그림만 본다면 당시 선비들이 흔히 행하던 소동파의 적벽에서의 뱃놀이를 모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7월 16일에 이루어진 이 뱃놀이가 소동파를 모방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鶴湖 金奉祖(1572-1630)가 1610년(광해군 2)에 있었던 文廟從祀 논의에서 來庵 鄭仁弘(1535-1623)이 晦齋 李彥迪(1491-1553)과 退溪 李滉(1501-1570)의 문묘 黜享을 요구하는 데 대해 嶺南辨誣疏首가 되면서 있었던 자세한 정치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이때의 뱃놀이는 단순히 선비들의 여가에서 한가롭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상소를 다섯 차례나 올렸음에도 임금의 윤허를 받지 못하자, ‘도를 근심하고 시국을 슬퍼하는 울분을 견딜 수 없게 되었고’<sup>26)</sup>, 이 때문에 ‘마음속 근심을 풀기 위해서’<sup>27)</sup>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 관련된 상황을 모

26) <泛舟赤壁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憂道傷時憤不自勝...”

두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당시 뱃놀이에서 지어진 시가 모두 유실된 상황<sup>28)</sup>에서 개인의 문집에서 자료를 수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들을 모두 모아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29)</sup>

그리고 藏庵 金昌祖(1581-1637)의 경우 꿈의 이야기도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그의 관심이 단순히 수많은 이가 모여 기념할 만하다고 여기는 행사에만 머물러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흔히 그림으로 남겨 전할 만한 일뿐만 아니라 선조의 행적에서 기억할 만한 것들은 모아 편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개별 자료를 제시했지만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의도한 측면도 발견된다. 예컨대 金大賢(1553-1602)과 관련된 〈換鵝亭養老宴圖〉와 金奉祖(1572-1638)와 관련된 〈丹城宴會圖〉는 그림의 제목만 보았을 때에는 별다른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 그림 뒤의 시문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들의 관계가 드러난다. 김대현은 1601년에 邪軍門을 접대한 공로로 山陰縣監을 역임한<sup>30)</sup> 바 있었다. 〈換鵝亭養老宴圖〉은 이때 그가 設行한 양로연을 그린 그림이며, 시문 역시 그가 향촌 교화에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그 아들 대에 와서 金奉祖(1572-1638)를

27) 〈泛舟赤壁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暢敘幽懷...”

28) 이 당시 뱃놀이에서 지어진 시가 모두 유실되었다는 것은 〈泛舟赤壁圖〉 관련 기록의 말미에 金重休가 제시하고 있다.

29) 이때 정인홍 탄핵소에 대한 기록은 『회재퇴계양현변무소』로 정리되어 허백당 중택에 보존되고 있다.

30) 〈換鵝亭養老宴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萬曆辛丑春, 以邪軍門接待勞, 除山陰縣監”

다른 〈丹城宴會圖〉는 같은 고을에 부임하게 된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어 앞선 김대현의 산음현감직과 연결이 되도록 배치한 것이다.<sup>31)</sup> 사실 김봉조의 삶을 떠올려 볼 때 물론 단성현감에 제수된 사실도 기억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서화첩에 실려 있는 다른 자료들을 볼 때 그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수합하여 郭再祐의 막하에서 활동하였던 의병 관련 기록도 기억할 만한 자료로 선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부임했던 고을에 부임하여 어머니로부터 “조심하여 아버지의 淸德을 더럽히지 말 것<sup>32)</sup>”을 당부 받는 장면을 시문으로, 고을에 부임하여 잔치를 벌인 일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다른 인물, 다른 이야기지만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金崇祖(1598-1632)의 경우에도 盆梅를 즐기는 것을 기록하면서 김농의 十梅詞<sup>33)</sup>를 함께 실어 놓아 화훼를 즐기는 雅趣가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앞선 장에서 서술한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家學의 전승과정을 기록한다거나 문중의 世譜를 기록하는 것 등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의 정리는 모두 그가 지녔던 기록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대에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혹은 전해 오지 않는 자료들을 모두 모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료를 많이 축적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한 결과물은 그가 편찬한 『석

31) 〈丹城宴會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萬曆丙辰, 鶴湖公 除丹城縣. 縣曾於壬辰之後, 屬於山陰, 至是復設.”

32) 〈丹城宴會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愼毋忝乃翁淸德.”

33) 〈盆梅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릉세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선조의 행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서화첩이라는 형식을 빌려 『세전서화첩』을 편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인용해 오더라도 출전을 밝혀 확장된 독서를 유도하거나, 전체 사실을 세밀하게 모두 제시하거나, 인물이 다르더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부각하여 서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 3. 조선 후기 영남인으로서의 지역 내 위상 재정립 시도

조선 후기의 영남인으로서의 위상은 이전 시기의 것과 비교할 것이 못되었다. 영남사람들은 戊午土禍 이후 연속되는 사화와 당쟁으로 인해 향촌에서 은거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인조반정과 甲戌換局 후 서인정권이 성립되면서 영남의 남인들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 (가) 이때 甲戌獄事가 있는 후 老論들이 집권을 계속하자, 南人들은 모두 외직으로 돌려 하찮은 고을에서 쓸쓸하게 지냈다.<sup>34)</sup>
- (나) 창송공은 1714년에 진사로 합격했으나 黨議가 점점 치열해짐과 국사가 날로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나이 40세도 못되어서 마침내 舉業을 폐하고 은거하며.....<sup>35)</sup>

34) <甘露寺宴會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時值甲戌一邊人十餘年專局後, 午人之稍有名字者, 一并枳之外符棲屑下邑.”

35) <蒼松齋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肅廟甲午登上庠, 見黨議漸激國事日非, 年未四十, 遂廢舉業, 隱居....”

앞선 서술한 바 있듯이 이 화첩에 실려 있는 인물들은 대체로 소과나 대과에 합격하여 관직을 역임한 바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후대로 올수록 대과 합격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그림이나 시문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제시한 인용문의 (가)는 김간이 밀양에 있는 甘露寺에서 놀며 그린 그림에 함께 실려 있는 글이다. 특히 갑술환국 이후 영남의 남인들이 정계에서 배제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나)를 살펴보면 蒼松 金瑞翰은 18세기에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은거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사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신양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은거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黨議'의 치열함과 국사의 잘못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당파 간에 싸움이 치열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18세기의 영남 남인은 흔히 아는 대로 정계로의 진출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이전 시기 영달한 가문이었던 안동의 풍산김씨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기록에서 1756년 무렵에 西人들이 金瑞翰의 影幀을 훔쳐가는 변고가 발생했다는 서술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중앙정계로의 진출 좌절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 영남사림들은 재야세력으로 존재하며 향촌에서의 경제적 기반과 안정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재지사족의 지위를 지키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는 自家門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세전서화첩』에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나 이들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동이 영남에서도 더욱 중심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에 없었다. 결국 이런 이유로 문중의 이름난 인물을 골라 서화첩을 펴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풍산김씨의 안동 지역 내에서의 움직임이다. 배영동이 지적한 바 있듯이 조선 시기 풍산김씨는 안동의 여타 유력 문중들과 거리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sup>36)</sup>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타 유력 문중과의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키기보다는 그 거리를 좁히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화첩의 편찬은 단순히 선조의 행적을 문중 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다소 소박한 목적을 넘어서게 된다. 즉 선조의 훌륭한 행적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선조가 영남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이들과 교류하였는가를 드러내어 문중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성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먼저 김양진과 김의정을 다룬 부분에서 金安老(1481-1537)와의 정치적 일화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김양진의 일화 가운데 김안로가 “더욱 감정이 쌓여서 여러 번 公(김양진)을 저지하다가 배척하여 補外하는 데 이르렀다”<sup>37)</sup>는 구절을 통해 사림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드러냄을 알 수 있다. 이들 문중이 지닌 사림파로서의 위치와 성격을 드러낸 후에는 퇴계학과와의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36) 배영동은 이에 대해 1895년에 민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안동의 사족과 유림이 주축이 되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 지휘부의 요직에 풍산김씨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鄉會의 적임자를 정할 때 하동마을의 몇 사람이 오미마을에서 적임자를 내는 것을 극력 저지하였다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다.(배영동, 앞의 논문, 214~215쪽 참조.)

37) <東都聞喜宴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安老, 用是尤大臧恨, 屢積公, 至是斥補外.”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가문에서 이황의 적전제자를 배출하지 않았다<sup>38)</sup>는 사실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안동지역에서는 퇴계학과와의 연계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데 필수 요건<sup>39)</sup>이었기 때문에 적전제자가 없는 이 가문의 경우 퇴계와의 연계성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들 문중은 지역 내에서 대체로 퇴계학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맥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김대현의 아들대부터이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김봉조는 정인홍의 「회퇴변척소」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두로 앞장선 바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김봉조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그의 활동은 그가 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제시한 것 또한 그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재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봉조의 적극적인 활동뿐 아니라 潛庵 金義貞(1495-1547)이 을사사화 이후 은거하면서 이황과 교유하면서 시를 주고받았던 사실과 一慵齋 金時忱(1600-1670)이 이황이 놀던 鳴玉臺에 누각을 짓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골라 실으면서 이러한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특히 명옥대는 이황의 遺觸地로 이곳에 누각을 세우기 위해 西厓 柳成龍(1542-1607)의 손자 柳元之(1598-1674)와 鶴峰 金誠一(1538-1593)의 손자 金燿 등과

38) 이는 초창기 풍산김씨의 경제적 토대가 서울 장의동(현 청운동)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서울에서 생활의 터전을 옮겨 온 때는 이황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의정이 이황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고 하나, 생활 터전이 달랐기 때문에 김의정의 아들 김농 또한 이황의 적전제자가 될 기회가 없었다.(최홍식, 오미마을 풍산김씨의 가학 전승과 학문활동,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74쪽 참조.)

39) 김성윤, 앞의 논문, 79쪽.

함께 通文을 보냈던 것을 함께 실어<sup>40)</sup> 이러한 의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자료 선택은 파문중 단위의 인물을 넘어 문중 전체의 인물을 고르고 이와 관련된 시문을 선택할 때에 퇴계·퇴계학맥과의 점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풍산김씨는 이황 사후에 학봉·서애계로 분화가 일어날 때 서애학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던 집안<sup>41)</sup>으로 김성일을 퇴계의 적전으로 간주했던 葛菴 李玄逸(1627-1704)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중휴는 갈암학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權斗經, 趙德鄰 등의 사람들과 김간의 교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sup>42)</sup> 지역 내의 양분된 상황보다는 영남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문중을 그려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후기 일반적으로 일어나던 향중의 분열 상황 속에서 파문중 단위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도 통합의식을 함께 비추어 향촌 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통합에 대한 의식은 앞서 가문에 대한 긍지를 드러낼 때 자신이 속한 파문중의 인물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전체 문중을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을 함께 드러내었던 점과도 통한다 하겠다. 그는 서화첩에 전체 문중의 인물에 대한 통합의식과 영남인으로서의 통합의식을 함께 드러내어 단순히 글과 그림을 모아 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지역 내에서 다소 약화되었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 <鳴玉埜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41) 여기에 대해서는 김형수의 「조선후기 오미동 풍산김씨 가문의 가학적 전통의 확립과정」(『안동학연구』8, 한국국학진흥원, 200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42) <竹巖亭七老會圖>, 『豊山金氏世傳書畫帖』.

#### IV. 맺음말

지금까지 『세전서화첩』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김중휴의 편찬 의식을 살펴보았다. 『세전서화첩』은 乾·坤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산김씨 10세부터 20세까지의 인물 가운데 19명의 행적이 31점의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그림 우측 상단에는 표제가 적혀 있고, 뒷장에는 그림을 둘러싼 일화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때 그림의 뒤에 실린 시문은 그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림에 종속되어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물 자체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그림으로 그릴 만한 것을 골라 그려 함께 실었다고 보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또한 여러 시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진 경우도 있고, 편찬자의 판단 하에 인물을 잘 드러낼 수 있을 듯한 것만을 골라 실어놓은 경우도 있다. 이때 해당 인물의 시문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시문이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후세에 길이 전할 만하다고 김중휴가 판단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聚歟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억할 만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후세에 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선조에 관한 사적을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한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지녔다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편찬자 스스로가 지니고 있던 자료 정리와 축적에 대한 관심과 당대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문중에서 후손에 의해 편찬된 선조의 자료들은 대체로 자신의 선조를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세전서화첩』 또한 이

러한 성격이 밑바탕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선조를 선양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당시의 생활상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료가 가진 성격을 이해하되, 그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와 함께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 편,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국립국악원, 2002.
- 김미영·박정혜, 『세전서화첩』, 민속원, 2012.
- 金成濶,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 -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대 屏虎保舍를 중심으로-」, 『嶺南學』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43-96쪽.
- 金重休, 『金重休日記』(<http://yn.ugyo.net/>)
- 김철희 역(김직현 서), 『세전서화첩』, 1982.
- 김형수, 「조선후기 오미동 풍산김씨 가문의 가학적 전통의 확립과정」, 『안동학연구』 8, 한국국학진흥원, 2009, 9-34쪽.
- 박 순, 「풍산김씨의 안동 정착과 소장 문서의 간략 해제」, 『안동학연구』 8, 한국국학진흥원, 2009, 35-68쪽.
- 박정혜,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 조선시대 《풍산김씨세전서화첩》 연구 -」, 『정신문화연구』 29권 2호(통권 10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39-286쪽.
- 배영동, 『청백정신과 팔련오계로 빛나는, 안동 허백당 김양진 종가』, 예문서원, 2015.
- \_\_\_\_\_, 「안동 오미마을 풍산김씨 『世傳書畫帖』으로 본 문중과 조상에 대한 의식」,

『한국민속학』42, 한국민속학회, 2005, 195-236쪽.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지애(芝厓)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15, 남명학연구원, 2010, 453-501쪽.

주승택·안병걸·배영동 외,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최홍식, 「오미마을 풍산김씨의 가학 전승과 학문활동」, 『봉황처럼 날아오른 오미마을』, 민속원, 2007, 39-80쪽.

한국국학진흥원 편,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2.



Abstract

## The Composition in 『Pungsangimssi-Sejeonseohwacheop(豊山金氏世傳書畫帖)』 and Kim Jung-hyu(金重休)'s Compilation Consciousness

Choi,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im Jung-hyu(金重休)'s Compilation Consciousness through the composition 『Pungsangimssi-Sejeonseohwacheop(豊山金氏世傳書畫帖)』. As 『Pungsangimssi-Sejeonseohwacheop(豊山金氏世傳書畫帖)』 is the album of calligraphy that has been come down from the Pungsan Kim Family(豊山金氏), which had resided in Omi-dong, Pungsan-eup, Andong-si for generations, it was produced by Hakam(鶴巖) Kim Jung-hyu(金重休). This album of calligraphy is composed of two books in Geon(乾) of being included 17 pieces of pictures and in Gon(坤) of being contained 14 pieces of pictures. Among the characters aged from 10 to 20 in the Pungsan Kim Family(豊山金氏), a title is written on the right-side top in each of having drawn 19 persons' achievements. On the next page is introduced anecdote surrounding pictures in detail.

It is significant to select and record what is enough to be remembered, and to transmit it to posterity. In the traditional era, a clan possessed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hus, what aims to heighten a family to which oneself belongs was performed with diverse methods. Accordingly, what arranges a classic ground on ancestors and then compiles it as a book can be said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nsciousness of reverence for family and ancestors. However, this album of calligraphy doesn't stop just in which a compiler simply reveals a pride of the clan. It will be able to be considered to be made by being interconnected an interest in arranging and

accumulating data that a complier oneself has, a perception on Gagamun(自家門) amidst a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after the 18th century, and coping with it.

**Key Word**

『Pungsangimssi-Sejeonseohwacheop』, Kim Jung-hyu, Pungsan Kim Family, Compilation Consciousness, The late Joseon period

- 논문투고일 : 2016.1.11. 심사완료일 : 2016.2.11. 게재결정일 : 2016.2.12.